

## 2414556 소프트웨어학부 박청은

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소개이다. 첫 번째 페이지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 다섯가지를 이미지로만 차례대로 나열하였다. 클릭할 경우 처음 보였던 사진 바로 옆에 제목과 설명을 덧붙였다. 다 읽게 되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. 수업 시간 이외에 전공과 독학으로 배운 지식을 더 이용하여 심화 내용까지 추가로 이용해 만들어 보았다. 가장 공들여 만든 부분은 수업 시간에 배운 박스모델을 활용하여 사진을 집어넣기,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커서를 대면 회색 필터를 끄며 컬러로 전환되는 것, 클릭할 경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이다.

첫 번째 페이지: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으로 바뀌게 되고,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 구현.

CSS:

1. `body`를 이용하여  
    `background`를 어둡게 설정,  
    `display: flex` 를 이용하여 가운데 정렬
2. `.box` 박스모델 사용  
    균등하게 5등분을 한 후 그 공간에 사진을 집어넣음.  
    `Cursor:pointer`를 이용해 클릭 가능한 포인터 표시를 이용
3. `.section` 및 `.section:hover`  
    의 `filter: none`를 사용하여 마우스를 사진 위로 올릴 경우 필터가 사라지며 컬러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설정

Js:

```
alert("게임 설명 웹 사이트입니다.");
```

페이지가 열리면 간단한 알림창으로 방문자에게 알림.

```
document.querySelectorAll('.section').forEach(section => {  
  section.addEventListener('click', () => {  
    const link = section.dataset.link;  
    window.location.href = link;  
  });  
});
```

모든 `.section` 요소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함.

클릭 시 **data-link** 속성에 저장된 **url**로 이동함. 추후 다시 되돌아 오는 기능으로 작동.

=====

서브 페이지: 총 5페이지로 이뤄져 있으며, 설명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구성요소는 거의 같기 때문에 한 장으로 요약:

CSS:

1. **body**:

페이지 전체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설정,  
배경색을 설정  
글자색을 설정.

2. **h1**:

제목의 색상을 설정.

3. **#container**(검색 및 사전 지식 참고, 이미지 바로 옆에 글씨를 둘 때 사용하는 기능.)

**display: flex**: 글씨를 가로 정렬하겠다.

**gap: 20px**: 이미지 옆에 글씨를 둘 때, 사이 간격을 20픽셀로 두겠다.

Js:

```
function toggleVisibility(id) {
```

```
    const dom = document.getElementById(id);
```

```
    dom.style.visibility = (dom.style.visibility === 'visible') ? 'hidden' : 'visible';
```

```
}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숨기게 하는 기능. css(*)에서 만든 view 버튼을 이용하여  
활성화를 담당하게 함.
```

(5번째 페이지에만 예외적으로)

```
prompt("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은 무엇인가요?");
```

를 넣어 선호도를 묻음.

그 외: href를 이용하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기능 사용

완성본은 간단해보이는데 코드는 정말 길게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. 수업시간에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배운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

것을 많이 느꼈다.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 자바스크립트와 css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웹사이트를 더 멋지고 정교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고 싶다. 이번 과제를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며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,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.